

분과 6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Ⅱ

사회 : 이효정(국민대학교)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경 번역 대조 연구

-〈新标点合本〉과 〈개역개정판〉을 중심으로-

FAN Wei-Xia(남서울대학교)

1. 서론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기록에 의해 그때부터 원래 하나의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으며 인간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는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통번역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성경과 성경 번역하는 자체는 서양의 문화 사상과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번역계의 기원이자 전 세계 각 분야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역사상 이를 초월할 수 없는 경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 번역은 동양권의 언어와 문화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현대까지 이루어진 성경 번역 약사(略史)와 주로 실현된 번역본에 대해 정리하면서 특히 현재 중국과 해외, 한국에서 각각 많이 사용된 성경역본인 〈新标点合本〉(1988)과 〈개역개정판〉(1998)의 실제 내용 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된 번역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성경 번역사의 흐름과 주요 역본을 되돌아보면서 중국어와 한국어 초기 성경 역본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이는 현대까지 이루어진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 역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최근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역본의 일부분 텍스트 내용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번역 현상을 분석한다. 중국어와 한국어 각각 성경 문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직역과 의역 두 전통 번역 방법은 중한 성경에서 반영된 방식과 어휘와 문법의 어학적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한자어 사용 현상과 언어 문화적 배경에 반영된 다른 특정 표현 현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한 성경 번역의 방법과 관련된 성경 내용과 문체, 표현 방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기독교가 중국에서의 전파는 635년의 당나라 太宗때부터 시작한다. 그 때 경교의 성행으로 『尊经』이라는 경교 경전은 페르시아인 景净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781년 당나라 德宗때 세운 〈大秦景教中国流行碑〉비문을 통해 경교가 중국에서의 유입과 발전 흥망, 그리고 『尊经』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교와 경교 번역은 성경과 기독교의 사상이 중국에서의 전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 초의 성경 번역은 주로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행해졌으나 대부분 부분적인 번역에 그쳤다. 1738년 파리의 巴设(J. Basset) 선교사가 라틴어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한 〈巴设译本〉(바셋역본)이 탄생하여 이 번역본은 신약 성경의 부분 내용을 번역하였으나 최초의 천

주교 성경 번역본이며 나중에 초기 개신교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초까지 개신교 이전의 중국어 성경 번역은 주로 당나라 때의 경교와 중국에 온 예수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번역자이자 중국어에 능통한 학자였고 번역 과정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작업하였다고 한다. 중국 개신교 성경 번역본은 주로 문언문으로 대표되는 <마쉬만역본>, <모리슨역본>, <사인조역본>(1840년에 <舊遺詔書>라는 이름으로 출판), <대표역본>과 쉬운 문언문의 <淺文理譯本>, 백화문인 <官話和合譯本>, 현대 중국어의 <現代中文譯本>이 있다(황지원, 2012). 이와 같이 중국어 성경의 역사와 주요 역본에 관한 한미경(1998), 任東升(2006), 이수연(2013) 등 연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모리슨역본> 번역시는 히브리어 및 헬라어의 원어성경 외에 라틴어를 대본한 <바셋역본>과 헬라어 표준원문(TextusReceptus)과 영어흠정역(King James Version)을 참고하였다. 이 역본은 이후의 중국어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한국의 초기 성경 번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미경(1998)에 의해 <모리슨역본>와 <대표역본>은 한국 초기 성경의 주요 참고 대본이라고 검증된다. 19세기 중엽을 지나 5·4운동과 중국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번역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중국어 성경 역본은 淺文理와 官話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淺文理의 대표 역본은 미국 성공회 선교사인 施約瑟(Samuel I. J. Schereschewsky)가 1902년에 완성된 <신구약전서>와 그의 조수에 의해 1910년 출판된 官話 번역본 <二指版>이 있다. 1919년에 이르러 결국 상하이 선교대회에서 구성된 번역위원회를 통해 드디어 신구약전서 통합본인 백화문 <和合本>이 출판되었다¹⁾. <和合本>이후부터 중국어 성경이 지속적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 스스로 성경 번역의 임무를 맡으면서 학자와 문인들이 번역 작업을 점차 주도해갔다. 1980년 이후는 <和合本>을 수정한 <新標點和合本>과 국제성경협회의 <新漢語譯本>이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한 <聖經新譯本(1993)> 등이 있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된 <現代中文譯本>(Eugence Nida, 1979)성경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중국과 해외에서 모두 인정을 받고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된 <新標點和合本>(1988)을 중국어 성경 역본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어 성경의 발전사와 역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해방 이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성경번역 및 그 출판의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눈다(류대영 외, 1994). 즉 구역(舊譯) 성경 번역·출판기²⁾와 개역(改譯)성경 번역·출판기³⁾로 구별할 수 있다. 189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초기 성경은 주로 만주와 일본에서 시작된 해외 역본인 로스역과 이수정역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3년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순수 한국내의 역본 작업을 시작하였다. 1911년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구약전서>와 <성경전서>를 발간하였고 이를 구역성경이라 한다. 개역성경이 나올 때까지 이 구역성경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한글마춤법통일안’ 채용문제, 용어의 공존과 혼란, 밀리 총무의 은퇴, 일제의 군국통치와 외국인 선교사와 선교기관 강제철수 등 문제와 상황에서 ‘조선성서공회’의 난산 등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서 1938년 구약과 신약이 합본된 <성경개역>이 결국 출판되었다. 이 공인역 개정 성경은 1952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거하여 수정을 거친 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1956년 다시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 일부 수정했고, 1961년에 815개소의 자구수정을 거쳤는데, 이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성경이 되었다. 성경 개역 작업과 해방 이후의 한국어 성경 번역은 래리 스톤(홍병룡 옮김, 2011)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⁴⁾. 그 후 1983년 시작하여 1993년 8월

1) <和合本>은 성경 번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그 간 번역된 중국어 성경들의 단점을 보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819년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 역본 이래 백년 만에 성경을 정리하였다. 둘째, 백화문으로 번역한 성경 중 가장 정확하고 면밀한 번역본으로, 5·4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신약의 <사복음서> 텍스트는 당시 정부와 학교의 표준 국어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2) 구역(舊譯) 성경 번역·출판기는 1893년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조직된 때부터 1911년 <성경전서>가 완간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3) 개역(改譯)성경 번역·출판기는 그 이후 1938년에 나온 <성경개역>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4) 이후의 한국어 성경 번역은 새번역 성경의 시도(<신약전서 새번역> 1967), 신구교간의 공동번역 성서의 출간(공동 번역 성서

에는 17개 교단 대표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면서 1998년 8월 31일 다시 <성경전서 개역개정>이 발행되었다. 개역개정판은 개역 성경의 7만 2천 7백 개소를 수정했다고 하고 대한성서공회는 교계의 여론을 수용, 번역에 반영하여 2000년 새로운 개역개정판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한 성서공회에 의해 최근 교단별 성경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85-90퍼센트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1년판 개역성경과 그 이후에 번역된 여러 한글 성경들은 권영문(2019)의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 역본의 관련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초기 성서에 있어 한국어 초기 성서는 중국어 한자 성경의 기반으로 하여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경(1998)은 중국성서의 어느 판본이 한국의 초기 성서(로스역과 이수정역)에 참고 대본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로스역은 모리슨역본과 대표역본을 복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수정역은 대표역본을 대부분 참고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후에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번역·출판된 구역(舊譯聖書<성경전서>)과 개역 개정판(改譯聖書<개역 한글판>)과 <성경전서 개역개정> 포함도 주로 로스역과 이수정 역의 수정본을 기초에 두고 시작하여 수많은 과정을 겪어 발전하여 이어진 결과물이라고 본다.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성경 번역은 초기 중국어 한자 성경의 기초에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의 자료에 의해 1900년경 성경 번역에 참가한 한국인 번역자는 대개 한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들로서 한문과 중국어에 능통하여 특히 개인역 단계에서 한문문리신약전서를 비롯한 여러 한문성경들을 대본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한글 초역 번역을 하였다는 점도 이에 반영한다.李志剛(2019)에 의해 중국어<和合本圣经>은 모리슨본보다 한 백년 뒤에 늦게 나왔으나 관련 많은 내용이 계속 모리슨역본의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 초기 한자 성경 특히 모리슨역본은 역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최근 한국 교단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판>(1998)의 한국어 성경과 중국과 해외에 광범위 사용하고 있는 <新标点和合本>(1988)의 중국어 성경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두 역본에서의 일부분 텍스트 내용을 뽑아 이루어진 직역과 의역의 번역 방식에 따라 반영된 번역 현상과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학적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표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성경에 반영된 어학적 특징과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의 번역방법과 관련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사례분석⁵⁾

3.1 직역과 의역

성경 번역에서는 직역과 의역 두 가지 번역 방식 모두 존재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언어 습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직역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의역을 취해야 되는지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대 수많은 선교사들과 번역가들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다음은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의 역본에서의 직역과 의역 현상을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 살펴본다.

1977), 현대어 성경(현대인의 성경 1985, 쉬운 성경 2001, 우리말 성경 2004, 메시지 2009, 모세오경 2011 등) 있다.

5) 연구 사례 분석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국제표준역본의 영어 성경 역본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1978)도 같이 참고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발표문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 원문만 제시한다.

1) 路加福音 14:26

영: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mother...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중: 人到我这里来, 若不爱我胜过爱(爱我胜过爱:原文是恨)自己的父母...就不能作我的门徒。

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시 1)에 중국어에서는 'hate'로 번역하지 않고 '爱我胜过爱'(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다)로 번역하고, 각주로 다시 원문에서 사용된 어휘 '恨'(미워하다)를 추가설명 했다. 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미워하다"로 번역되어 원문을 직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는 원문 직역 방법을 중시하는 것과 중국어에서의 의역 방식 경향의 차이점이 보인다.

다음의 예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

2) 路加福音 15:8

중: 或是一个妇人, 有十块钱, 若失落一块, 岂不点上灯, 打扫屋子, 细细的找, 直到找着吗。

한: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은전의 명칭)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시 2)에 중국어 번역에서는 중국의 기본 화폐 단위인 "块"(위안)로 전환하여 끝에 "钱"(돈)을 부가설명으로 번역하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통화단위인 '드라크마'를 그대로 음역어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인명에 대한 번역 예시를 살펴본다.

3) 历代志上 6:51

중: 亚比书的儿子是布基。布基的儿子是乌西。乌西的儿子是西拉希雅。

한: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4) 历代志上 8:11

중: 他的妻户伸给他生的儿子有亚比突, 以利巴力。

한: 또 그의 아내 후실에게서 아비들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5) 路得记 1:20

중: 拿俄米对他们说, 不要叫我拿俄米(拿俄米就是甜的意思), 要叫我玛拉(玛拉就是苦的意思), 因为全能者使我受了大苦。

한: 나오미는 여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희락)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괴로움)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위의 3)과 4), 5)예시들은 인명에 관련된 번역 사례이다. 중국어와 한국어 번역에서는 인명에 대해 모두 음역 직역이나 음역 직역과 괄호에서의 의미 추가 설명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3)과 4)에는 인명을 음역 직역으로 하였고 5)는 음역과 각주에 원문 뜻의 설명을 추가한다.

또한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본다.

6) 诗篇 17:8

중: 求你保护我, 如同保护眼中的瞳人。将我隐藏在你翅膀的荫下。

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7) 以西结书 3:7

중: 以色列家却不肯听从你, 因为他们不肯听从我。原来以色列全家是额坚心硬的人。

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위 예시 6)에서 중국어 “眼中的瞳人”과 한국어에서 대응된 “눈동자”, 7)에서 중국어 “额坚心硬”과 대응된 한국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다”는 모두 문화소에 대한 이국화 번역 전략을 사용한 현상이다. 특히 7)예시에서의 “额坚心硬”의 “心硬”은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额坚”(이마가 굳다)은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경 사건 배경에 반영된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모두 이국화 전략을 사용하는 번역 현상이다. 그리고 위 예시 6)과 7)에 한국어에서의 관련 표현은 모두 중국어에서의 표현과 일치한다는 점이 보인다.

3.2 어휘와 문법

3.1에서는 직역과 의역의 번역 방식은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에 반영된 현상을 살펴보았다. 3.2에서는 어휘와 문법의 어학적 특징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 현상을 살펴본다.

3.2.1 한자어의 사용

우선 중국어성경과 한국어성경에서 흔히 보이는 한자어 번역 현상을 살펴본다.

8) 구약 제목과 신약 제목

구약: 创世记-창세기(Genesis) 民数记-민수기(Numbers) 申命记-신명기(Deuteronomy) 士师记-사사기(Judges) 列王记上-열왕기 상(1 Kings) 列王记下-열왕기 하(2 Kings) 历代记上-역대 상(1 Chronicles) 历代记下-역대 하(2 Chronicles) 诗篇-시편(Psalms) 箴言-잠언(Proverbs) 传道书-전도서(Ecclesiastes) 雅歌-아가(Song of Songs) 以赛亚书-이사야(Isaiah) 哈该书-학개(Haggai)

신약: 马太福音-마태복음(Matthew) 马可福音-마가복음(Mark) 路加福音-누가복음(Luke) 约翰福音-요한복음(John) 使徒行传-사도행전(Acts) 罗马书-로마서(Romans) 哥林多前书-고린도전서(1 Corinthians) 哥林多后书-고린도후서(2 Corinthians) 以弗所书-에베소서(Ephesians) 提多书-디도서(Titus) 约翰壹书-요한1서(1 John) 约翰贰书-요한2서(2 John) 约翰叁书-요한3서(3 John) 犹大书-유다서(Jude) 启示录-요한계시록(Revelation)

위에 예시 8)에 제시된 구약과 신약 제목은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의 한자어 용어로 그대로 번역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이 특정 용어에 있어 한국어 성경에서의 한자어 사용 현상을 많이 찾을 수 있다.

9) 시편 8:1

중: 耶和華-我們的主阿, 你的名在全地何其美! 你將你的榮耀彰顯于天。

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시 9)에 중국어의 “美”자는 한국어의 “미”로 그대로 번역된 게 아니지만 한자 “美”의 의미적인 뜻인 “아름답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번역된다. 다음의 예시들을 본다.

10) 레위기 1:3

중: 他的供物若以牛為燔祭, 就要在會幕門口獻一只沒有殘疾的公牛, 可以在耶和華面前蒙悅納。

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시 10)에 한자에서는 ‘번’(燔)은 ‘굽다, 말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도 ‘태운다’, ‘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어 한자를 알거나 한문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11) 레위기 2:1

중: 若有人獻素祭為供物給耶和華, 要用細面澆上油, 加上乳香,

한: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시 11)에 한자에서 ‘소’(素)라는 의미는 주로 ‘희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또는 ‘고기를 쓰지 않은 음식’으로 주로 ‘채소’나 ‘소찬(素餐)’은 주로 ‘고기나 생선을 쓰지 않은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발음상, 한글로 ‘소제’ 하면, ‘청소’를 떠올릴 수 있다. 이 단어 역시 한자어에 익숙한 사람만 이해가 가능하고 정확한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 레위기 4:3의 贖罪祭(속죄제)와 레위기 6:6의 贖愆祭(속건제), 또한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3가지로 구분된 제사는 擧祭(擧祭, 레위기 7:14, 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搖祭, 레위기 7:30,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전제(奠祭, 레위기 23: 13, 제사지낼 전, 부어 드리는 제물로)같은 것들이 있다. 흉패(胸牌, 레위기 8:8), 무교병(無酵餅, 레위기 8:26), 유교병(有酵的餅, 레위기 7:13), 逾越節(유월절, 12:27), 희년(禧年, 환희의 해, 레위기 25:10) 등 용어도 한자어로 쓰는 현상이 보인다. 이는 근·현대에 들어와서도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여전히 중국어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는 점을 알 수 있다.

3.2.2 특정 현상

이러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학적 차이에 따라 중한 성경 번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정 표현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1) 중국어 성경

먼저 중국어 성경에서만 있는 몇 가지 특정 번역 현상을 다음의 예시들을 통해 살펴본다.

12) 역대상 7:15

중: 玛吉娶的妻是户品, 书品的妹子, 名叫玛迦。玛拿西的次子名叫西罗非哈。西罗非哈但有几个女儿。

한: 마길은 흠빔과 습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예시 12)에 사용된 ‘但’(만)⁶⁾은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只, 仅, 只是’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서면어로 나타나며 구어 ‘有’와 같이 섞여서 쓰이는 현상이 보인다.

13) 에스더 4:1

중: 末底改知道所做的这一切事, 就撕裂衣服, 穿麻衣, 蒙灰尘, 在城中行走, 痛哭哀号。

한: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예시 13)에 사용된 ‘哀号’(대성 통곡)는 중국 고대 문어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이 문장에서 고대 용어 ‘哀号’와 현대 용어 ‘痛哭’를 함께 쓰는 사자용어 현상이 보인다.

14) 에스더 6:13

중: 将所遇的一切事, 详细说给他的妻细利斯, 和他的众朋友听。他的智慧人, 和他的妻细利斯对他说, 你在末底改面前始而败落, 他如果是犹太人, 你必不能胜他, 终必在他面前败落。

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위 예시 14)의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도 예시 13)과 같이 중국어 고대 용어 ‘始而...终必’(~ 시작하였고, ~ 결국 ..., 청나라 때 썼던 표현)로 사용되어 한 문장에서 고대 용어와 현대 용어를 같이 쓰는 현상이 보인다.

위 예시 12), 13), 14)에서 사용된 서면어 표현이나 고대 문어 어휘를 통해 성경의 역사성 또는 성경 말씀의 장중함과 예스러운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본다.

15) 创世纪 11:31

중: 他拉带着他儿子亚伯兰和他孙子哈兰的儿子罗得, 并他儿妇亚伯兰的妻子撒莱, 出了迦勒底的吾珥, 要往迦南地去; 他们走到哈兰, 就住在那里。

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시 15)에 중국어 ‘他孙子哈兰的儿子罗得’와 ‘他儿妇亚伯兰的妻子撒莱’ 두 문장에서는 의미 표현의 중의성 현상을 존재한다. ‘롯’은 데라의 손자인 하란의 아들인지 아브람의 손자인 하란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데라의 며느리인지 아브람의 며느리인지 관련 사건 배경과 전후 문맥이 없으면 결국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다중 복문의 중국어에서 인칭 대명사의 의미 중의성 현상이 보인다.

6) 『乐府诗集』 중 “但闻黄河流水鸣溅溅”의 구절이 있다. ‘但’은 중국어 옛날 시집이나 서면어에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중국어 성경에서의 대구 현상과 사자용어의 사용 선호 현상도 하나의 특정한 번역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16)과 17)예시를 살펴본다.

16) 디모데전서 2:4

중: 他愿意万人得救, 明白真道。

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7) 创世纪 8: 22

중: 地还存留的时候, 稼穡, 寒暑, 冬夏, 昼夜就永不停息了。

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위 16)예시에 중국어 ‘万人得救’(구원을 받으며)와 ‘明白真道’(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는 전후 문장을 대구하면서도 사자용어로 사용된 표현이다. 17)예시에서의 ‘稼穡’는 현대 중국어 ‘播种和收获’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2음절 주어인 ‘寒暑’, ‘冬夏’, ‘昼夜’와 서로 호응하며 번역된 것이다.

다음에는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의 영어 어법 표현 현상을 살펴본다.

18) 에스라 4:23

중: 亚达薛西王的上谕读在利宏和书记伸帅, 并他们的同党面前, 他们就急忙往耶路撒冷去见犹大人, 用势力强迫他们停工。

한: 아닥사스다 왕의 공문서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자,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예시 18)에 ‘读在...面前’(~앞에서 낭독하다)은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在...面前读’로 표현하고 개사 구조 ‘在...面前’(~ 앞에서)의 사용 위치는 현대 문법과 달리 동사 ‘读’(낭독하다)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영어 성경의 관련 표현 ‘read before’의 어법 순서와 일치하다.

19) 느헤미야 12:43

중: 那日, 众人献大祭而欢乐。因为神使他们大大欢乐, 连妇女带孩童也都欢乐, 甚至耶路撒冷中的欢声听到远处。

한: 이 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시 19)에 ‘听到远处’(멀리 들렸다)는 현대 중국어에서 ‘从远处听到’로 표현하며 위 예시에서의 ‘到’(~까지)는 개사의 역할을 담당하여 예시 18)에서 제시된 영어 문법과 같이 동사 뒤에 나타나는 문법 구조가 보인다.

20) 에스더 4:17

중: 于是末底改照以斯帖一切所吩咐的去行。

한: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예시 20)에 ‘一切所吩咐的’(명한 대로 다)는 현대어에서 ‘所吩咐的一切’(명한 대로 모든 것)로 표현되고 목적어 성분으로 쓰이는 ‘一切’(모든 것)는 중국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과 같이 부사어(모두, 다)의 성분으로 번역된 현상이다.

21) 에베소서 2: 10

중: 我们原是他的工作, 在基督耶稣里造成的, 为要叫我们行善, 就是神所豫备叫我们行的。

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시 21)에 ‘工作’는 현대 중국어에서 ‘일이나 직업’의 뜻으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작품’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이 사례에서도 역시 영어의 번역 표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어 성경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징의 차이에 따라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정 현상을 살펴본다.

22) 约翰福音 1:1

중: 太初有道, 道与神同在, 道就是神。

한: 태초에 말씀(헬, 로고스)이 계시니라 이 말씀(헬, 로고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22)에 ‘Word’와 ‘God’의 경우는 중국어에서 ‘道’와 ‘神’로 표현하여 이는 중국 종교 색깔을 맞게 번역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를 각각 ‘말씀’과 ‘하나님’로 번역된다. 그리고 ‘말씀’에 대응하는 동사 ‘있다’의 높임법 어휘 표현인 ‘계시다’로 번역하는 것도 한국어 특유의 언어 특징이 보인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화소와 고유한 언어학적 특징의 차이로 인해 번역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본다.

23) 디모데전서 1:21

중: 世人凭自己的智慧, 既不认识神, 神就乐意用人所当作愚拙的道理, 拯救那些信的人。这就是神的智慧了。

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 골로새서 2: 8

중: 你们要谨慎, 恐怕有人用他的理学, 和虚空的妄言, 不照着基督, 乃照人间的遗传, 和世上的小学, 就把你们掳去。

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시 23)에 중국어 성경에서는 3개 복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발달로 인해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예시 24)의 경우 중국어 성경은 하나의 포괄 문장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어 성경은 3개의 복문으로 이루어진다. 24)에 한국어의 ‘그것은’은 앞 문장에서 목적어 성분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를 대체하여 이어진 문장의 주어 역할을 담당하여 다시 하나의 새로운

문장을 구성한다. 이런 주어 추가 현상은 다음의 예시 25)와 26)에서도 나타난다.

25) 베드로전서 3: 18

중: 因基督也曾一次为 罪受苦 (受苦有古卷作受死), 就是义的代替不义的, 为要引我们到神面前。按着肉体说 他被治死。按着灵性说 他复活了。

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6) 베드로전서 2: 9

중: 惟有你们 是被拣选的族类, 是有君尊的祭司, 是圣洁的国度, 是属神的子民, 要叫你们宣扬那召你们出黑暗入奇妙光明者的美德。

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상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 예시 25)와 26)에 한국어 성경에서도 ‘이는’은 역시 앞의 문장을 대체하여 뒤 문장의 주어가 되어 이어진 문장과 연결하는 역할로 보인다.

다음의 27)번과 28)번의 예시를 살펴본다.

27) 창세기 1: 28

중: 神就赐福给他们, 又对他们说, 要生养众多, 遍满地面, 治理这地。也要管理海里的鱼, 空中的鸟, 和地上各样行动的活物。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 이사야 40: 8

중: 草必枯乾, 花必凋残, 唯有我们神的话, 必永远立定。

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위 예시 27)과 28)에 중국어 성경에서는 연사 또는 무표를 통해 문장을 연결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로 표현한다. 그리고 예시 27)에 뒤 문장의 중국어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했으나 앞의 절 사이에 부호 쉼표(,)로 표시하여 마지막 절 앞에 하나의 접속사 ‘和(와/과)’로 연결하다. 한국어에서는 절 사이에 모두 접속조사 ‘와/과’로 연결한 점에 이와 차이가 보인다.

다음에는 인칭대명사에 대해 한국어 성경에서의 표현을 살펴본다. 예시 29)를 본다.

29) 마태복음 16:16

중: 西门彼得回答说, 你是基督, 是永生神的儿子。

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시 29)에 중국어 성경에서는 2인칭인 ‘你’로 직접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 성경에서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칭(대명)사 ‘주’로 번역된 현상이 보인다. 이는 한국어는 중국어와 영어와 달리 관계성을 중시하는 대화중심언어에 속하

므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성경에서의 종결어미 현상을 살펴본다.

30) 로마서 10:10

중: 因为人心里相信, 就可以称义; 口里承认, 就可以得救。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1) 로마서 10:15

중: 若没有奉差遣怎能传道呢? 如经上所记: “报福音传喜信的人, 他们的脚踪何等佳美!”

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시 30)과 예시 31)에 한국어 성경에서의 ‘-(느)니라’, ‘-리요(-리오)’, ‘-도다’는 문장 종결어미로 사용한다. 이들은 모두 예스러운 표현으로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서술할 때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성경의 성격을 맞게 사용하여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는 중국어에서 어휘를 통해 성경의 성격을 표현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

4. 결론(현상 요약)

...

■ 참고문헌 ■

- 권영문(2019), 성경 번역과 해석, 올바른 설교, 형제출판사, 31-40쪽
 래리 스톤(홍병룡 옮김, 2011), 성경 번역의 역사, 포이에마 발행처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1994), 대한성서공회사 2-번역반포와 권서사업, 대한성서공회
 이수연(2012), 성경中译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이학재(2016), 한글 번역 성경에 있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과 그 대안, 성경과 고고학
 한미경(1998), 초기 한국성서와 중국성서의 서지학적 연구, 박사논문
 황지연(2012), 중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개신교 성경 번역본을 중심으로, 학회지논문
 『新标点和合本』(1988)과 『개역개정판』(1998) 성경 원문
 任東升(2006), 〈聖經中文譯本考〉, 《解放軍外國語學報》第一期29卷
 恩惠(2019), 성경和合本语言对中国社会的影响列举
 蔡锦图(2018), 和合本的历史和意义
 李琴(2011), 《圣经》汉译中的本土化阐释策略
 张天慧(2020), 《圣经》的汉译历程及译文简析
 高永安(2011), 汉译《圣经》的语言学价值

...

〈토론〉 “중국어와 한국어의 성경 번역 대조 연구 -〈新标点和本〉과 〈개역개정판〉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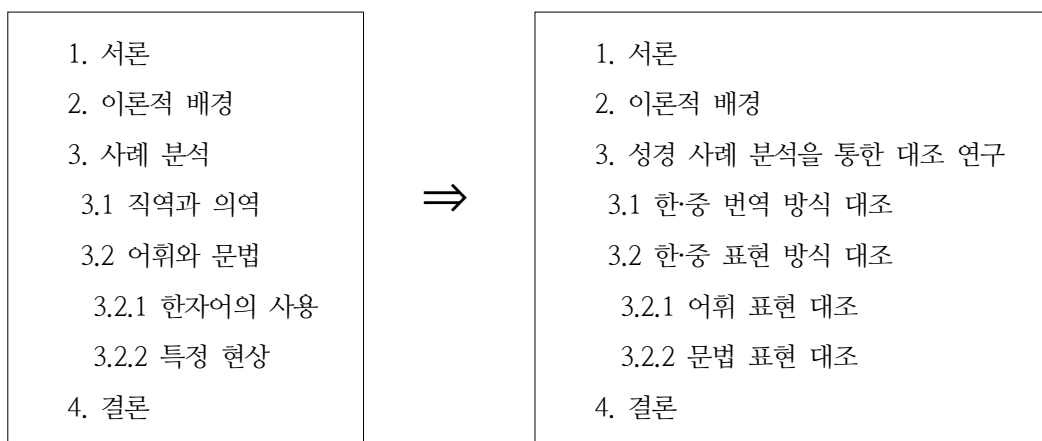
손경애(호남대학교)

발표자께서는 한·중 성경 번역본 속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요소를 대조·분석함으로써 성경 번역에 있어 한·중 두 나라의 번역 방식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자는 데에 목적을 둔 연구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연구와는 다른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흔치 않은 연구이며 토론자인 저한테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발표자의 욕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된 세 종류의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몇몇 부분은 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 주제를 보면 연구 범위가 너무 크고, 연구 방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중 성경 번역 대조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조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석만 나열한 채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중 성경 번역 대조를 통한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 연구”처럼 제목을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둘째, 목차가 체계적이지 않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셋째, 크리스찬을 위한 신학 관련 연구보다는 성경 속에 나타난 언어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어학 분야 논문인만큼 용어 설명에 있어 더욱 친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경교’가 어떤 종교이며, 어떻게 기독교 전파에 영향을 주게 된 시초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궁

금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로스역’과 ‘이수정역’ 등 낯선 용어에 대해서도 전혀 추가 설명이 없어서 문외한인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넷째, 한국어 성경 속에서 한자어가 쓰이는 현상을 하나의 특징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 예측 가능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다루었다시피 한국어 성경은 이보다 먼저 나온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가 현재도 한국어의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이기에 한자어를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다섯째,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두 성경 번역을 대조·연구하는 목적이랄까 또는 그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9) 시편 8:1

중: 耶和華-我們的主阿, 你的名在全地何其美! 你將你的榮耀彰顯于天。

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히브리어 원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니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장엄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majestic’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왜 영어에서는 ‘majestic’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반해, 한국어나 중국어에서는 모두 ‘아름답다’와 ‘美’로 표현하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에 대한 출처나 자료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始而...終必’(~ 시작하였고, ~ 결국 ..., 청나라 때 썼던 표현)로 사용되어 한 문장에서 고대 용어와 현대 용어를 같이 쓰는 현상이 보인다.

위 문장에서 ‘始而...終必’가 청나라 때 썼던 표현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령 이것이 청나라 때 쓰이던 표현이라면 모두 고대 용어에 속할 것인데 왜 고대 용어와 현대 용어를 같이 쓰는 현상으로 본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저의 이견이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의 옥고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의 앱 도구 사용에 관한 파일럿(pilot) 연구

-우랄 연방 대학교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김민영(한국외국어학교)

I. 서언

-본고는 러시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 수업에서, 교육용 앱을 활용한 교수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어는 영어와 중국어에 이어 3번째 외국어로 자리매김했다.¹⁾

-우랄연방대학교(urfu.ru)는 '고려인 박해와 북한과의 산업협력 흔적이 국립기록 보관소에 보존돼 있는 우랄 지역'²⁾에 위치한 러시아 12위 대학교. 한국어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풍부하여 최신의 스마트러닝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 형태, 방침, 방향성 등과 조화를 이루며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교수자가 매우 앞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무턱대고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고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랄 연방 대학교가 요구하는 수업 형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3명의 학생들을 선별하여 한국어 교육용 앱인 세종학당 초급 문법 어플리케이션을 보조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요컨대 이 연구는, '다중 화상 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앱을 활용, 스마트러닝 시대 수업의 한 형태로 그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파일럿 연구라 할 수 있다.

II. 수업 환경 분석

-학습 대상: 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전공 2학기 학생 총 24명

-수업 중 사용 언어: 영어, 한국어(학생들은 영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

-수업 시간: 주 1회, 두 시간, 총 15주

-학습 목표: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숙달

-수업의 어려움:

- 학습자 요인: 학생 간 한국어 수준 차. 2학기 차 수업이긴 하나, 토픽 기준 1급 초반부터 3급 수준까지 한 반에 모여 있다. 학습 대상의 특성을 명백히 하기가 어렵다.
- 수업 운영 방식: 화상 전화 톨인 SKYPE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칠판 사용이 어렵다. 학생들

1) 러시아에서 한국어는 3위 외국어...영어·중국어 다음(매일 경제 2018.12.04.)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12/757015/>

2) 러시아 우랄에 한국학 연구의 싹 트다(제일동포신문 2020.03.02.)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53>

이 모두 강의실에 앉아서 스크린 속 교수자와 화상 통화하는 형식이다. 이에 동영상 및 PPT 등의 공유가 불가하므로 교구재, 수업 보조 자료 사용이 쉽지 않다. 그림 카드나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화질이 한계가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 대학의 관여: 현지 대학 담당 교수가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매주 교실 참관. 혹은 수업에 개입. 영어로 수업을 해줄 것을, 학습자들에게 많은 문법을 가르쳐줄 것을, 그러면서도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할 것을 요구한다.
- 교재 문제: 서로 다른 학습 수준을 충족시키며, 수업 운영 방식과 대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교재를 구할 수도 없고 국내에 출판되었다 해도 현지에서 구입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가 매주 영어 설명을 상술한, 2시간 분량의 핸드아웃을 준비한다. 여러 대학 기관 한국어교재 참조. 본 연구자가 미국 미시시피대학교에서 사용했던 핸드아웃 참조.
- 교수자 요인: 한국어 강의 경력 총 14년, 영어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경력. 본 연구의 수업에 한해, 수업이 자칫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 전달 형태(교수자 중심 수업 형태)가 되지 않을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문법앱이 그 도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시험적 실행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화상 수업과 앱 활용 수업을 어떻게 동시에 구현해낼 것인가?

-있다면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가?

-전체 적용 전, 파일럿 수업 형태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파일럿 연구(pilot study)

본 실험의 연구 방식은 아래의 전제에서 출발한 파일럿 실험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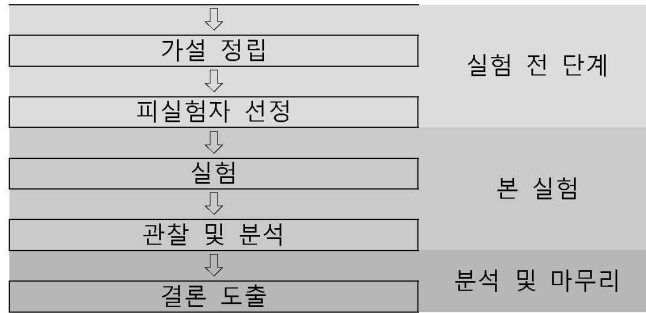
1) 전제: 실시간 다중 화상 강의 시스템만으로 한국어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파일럿 연구: 대규모 연구를 실행하기 전, 샘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로, 본 연구에 필요한 가설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방법을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연구 목표와 설계가 현실적인지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샘플이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샘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파일럿 연구 결과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림1. 연구 절차]

IV. 실험의 설계와 진행

1. 학습자 서면 인터뷰

- 학습자 요인 분석을 위해 수업 2주 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 본고와 관련한 유의미한 질문과 대답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다.

<표 1. 학습자 사전 인터뷰>

질문	응답	비고
3. 수업 영어	24명 중 22명 Advanced level. 2명 Intermediate-high level	전원 영어 유창
	4명 I can only read the Korean alphabet.	1급 하
	8명 I know basic greetings at the first level.	
4. 한국어 실력	8명 I can speak simple Korean at the first-low level.	1급 중
	4명 I can speak with confidence at the first level.	1급 상(또는
	0명 I think I'm at least level 2 in Korean.	2급 하)
	11명 원어민 화자와의 한국어 연습	
5. 기대 사항(최대 2개 응답 가능)	15명 정확한 문법 지식 습득	수업명: '한국어 기초 수업'
	7명 언어문화 지식 습득	
	1명 발음 연습	
	2명 기타(한국 음악 듣기, 한국 영화 보기)	

- 서면 인터뷰를 통해 먼저 1급 하, 중, 상을 구분
- 한국어 실력은 1급 하에서 2급 하까지 스펙트럼이 넓어 수준을 맞춘 수업 진행이 어렵다.
- 수업명이 한국어 기초 수업인 까닭에,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한 기대 사항은 문법 습득, 원어민과의 연습, 언어문화 지식 습득 순이었다.

2. 이론의 탐색과 가설의 수립

- 먼저 러시아어권 한국어교육의 특성과 실시간 화상 강의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였다.

①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

a. 러시아 내 한국어교육

- 다리아(2020)에 따르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관은 대학기관
- 러시아에서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30 여개

-교재 현황: 주로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 대학교, 원광한국학교
-그러나 아직 교재 개발은 활발하지 않다.

b.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대조

-임광래(2013):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형태론적, 유형론적, 계통론적으로 매우 다른 언어.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달리 성, 수, 격, 인칭 등 발달, 격은 굴절에 의해 실현.

-함계임(2020)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문법 기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몇 가지 대조언어학적 차이를 설명

-이유 문장의 경우 한국어는 선행절에 이유가, 후행절에 결과 내용이 나타나는 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반대, 주절의 위치가 다르다.

-러시아어의 문장 분류에 청유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문과 명령문으로 나누어 사용해야.

-강경민 외(2017)는 거절 화행에 대한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보인다.

-러시아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거절 화행에서 완곡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완곡 표현 중 '의문 표현'을 무례하다고 생각. '생략 표현' 또한 부정적.

-러시아인들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

-'괜찮아요'가 거절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야.

② 한국어 교육에서의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

-Walsh & Reese(1995):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 유형에 따라 데스크탑 화상 시스템과 다중 화상 시스템으로 구분

-데스크탑 화상 시스템은 줌과 같은 형태로 학습자 개개인이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

-다중 화상 시스템은 본 수업과 같은 형태로 교사와 학습자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학습자들은 한 곳에 모여 집단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

-그간 연구는 보통 전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화상 강의의 장점을 재정리할 필요

a.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

-일반적으로 화상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는 민경아 외(20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이 편리
- 학습에 대한 높은 접근성
-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
- 활발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실시간으로 일어나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음
-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여 대면 수업과 거의 유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일면 아주 이상적인 최상의 교수 학습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라는 특성과 본 연구자의 경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장점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는 역시 같은 논지에서 언급한 일반적 화상 강의의 단점이다.

- 온라인 및 제반 환경이 필요

- 개별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 학습자의 집중도 및 몰입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실제와 같은 상호작용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
-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이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

- 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어민 수업이 가능
- 나) 교수자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강의료는 절감할 수 있으나 수업 준비 측면에서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음.
- 다) 대면 수업을 불가 상황을 감안하여, 대안적으로,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 방식
- 라) 대면 수업에 비해 활발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마)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오히려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음.
- 바) 개별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 교수자와 강의실 뒷자리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에 가까움(따라서 수업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뒷자리를 선택할 수 있음)

-민경아 외(2020)는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에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습자가 강의 도중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

-메신저를 비롯한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 더욱 많이 요구.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원활하지 않음.

-학생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수 단위로 과제 수행 유도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에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실시간 상호작용이 확대되어야.

③ 가설의 정립

-앞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러시아어권 한국어교육, 실시간 화상 강의의 특징을 살펴 보완의 도구로 ‘스마트폰 한국어교육 앱’을 선택,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수준에 맞는 문법 앱을 과제를 제공하여 피드백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를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업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앱을 선택한 데에는 이영희(2020)를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영희(2020:124)은 모바일 어휘 학습이 ‘종이 교재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적극적인 어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학습한 어휘는 플래시카드, 퀴즈, 게임, 녹음 등을 통해 연습할 수도 있으며 적절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교육 방안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더하였다.

④ 스마트폰 앱과 한국어교육

-‘스마트러닝’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보편화 되면서 생긴 용어로, 기존의 ‘이러닝(E-learning)’과는 달리 휴대가 용이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습 방식이다(이유미 외, 2019:4).

-그러나 스마트러닝과 기존 이러닝의 장점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³⁾

-스페인어 교육에서 이러닝을 다룬 김현식(2017)에서는 Naismith 외(2004), 조세경(2007)을 통해 이러닝이 아래의 학습이론 측면에 부합함을 보인다.

가) 행동주의적 활동(Behaviorist-type activity) :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강화(reinforcement)가 되면 습관으로 형성되어 학습. 모바일 기기는 학습에 필요한 자극을 빈번히 줄 수 있는 도구이다.

나) 구성주의적 활동(Constructivist-type activity) :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능동적 활동의 과정이 학습. 이 학습론에서는 상호작용학습, 과제 중심학습과 같은 학습원리가 강조 된다. 모바일 기기는 구성주의적 활동에 적합하다.

다) 상황적 활동(situated activity): 학습의 효율성은 학습이 실제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면 증가. 모바일 기기는 비슷한 맥락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라) 협동학습(collaborative activity): 이러닝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소통도구적 효용성은 협동 학습에 잘 어울린다.

마) 비정규 평생학습(informal and lifelong learning): 성인들의 대부분의 학습은 정규학습보다는 비정규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 IT 기기 사용학습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루어지며, 정규 또는 비정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러닝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앱 기반 수업 역시 이상적일 수는 없다.

-우선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앱만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앱은 블렌디드 러닝에서의 한 형태로 추천될 뿐이다.

-부작용: 수업 시간에 대면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 경우,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지 않게 된다. 즉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이 주가 아닌, 보조 틀이 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

-한편, 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연구가 있다. ;이유미 외(2019), 한국어 학습 불안과 앱.

-이에 따르면, ‘언어불안’이란 언어 습득 시 발생하는 불안으로 외국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작용 즉, ‘긴장감, 걱정, 신경증적 느낌’을 유발하는 ‘복합적 감정’.

-Krashen 외(1983)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의 불안을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 이론(Affective Filter Hypothesis)’으로 설명한바 있다.

-Horwitz 외(1986)에서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서 느끼는 불안을 ‘의사소통 두려움(Communication Apprehension), 시험불안(Test Anxiety),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Fear of Negative Evaluation)’로 구분하였다.

3)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과 한국어교육용 앱 사용과 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대학 기관 한국어교육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회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가 59.1%. 매우 높은 빈도. -논의를 요약하면 학습자들은 보조 도구로 앱을 선호, 선생님 외의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개인학습을 선호하였다. -이를 토대로 ③의 가설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였다.

⑤ 가설의 재정립

-가설: 수준에 맞는 문법 앱을 과제를 제공하여 피드백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경우,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를 보완할 수 있고 학습자의 불안 요소도 낮출 수 있다.

3. 피실험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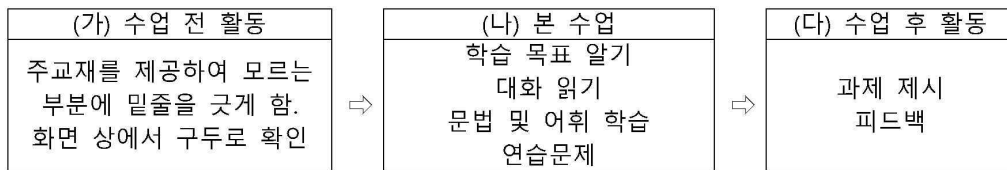
-실험 참여에 승낙한 학생 중, 한국어 수준이 다른 세 명을 선정
-수강생 전원 여학생, 3인 모두 여성이고, 대학교 2학년, 영어 능력도 모두 상위 수준.

<표 2. 피험자>

순서	이름	한국어 수준	수업에 기대 사항
1	다리아	1급 하(한글 자모만 이해)	문법 지식, 언어문화 지식
2	크세니아	1급 중(기본 인사 및 기본 활용을 앎)	문법 지식
3	알렌산드라	1급 상(1급 수준의 간단한 대화 가능)	문법 지식, 한국음악 듣기

4. 실험 연구

-앱의 선정: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앱. 문법 설명이 쉽고(러시아로 설명을 읽을 수 있음), 게임 기능이 있어 흥미로움. 앱을 일단 받아두면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독학이 가능함. 해당 앱을 통해 다른 나라 한국어 학습자와 상호작용도 가능함.
-현재 진행 중인 수업 형식



[그림2. 기본 수업 형식]

-실험 모형 설계:

- a. 실험군: 피실험자 3인, 대조군: 피실험자를 제외한 학습자 21인
- b. 실험 기간: 3월 23일~4월 13일(4주)
- c. 실험 방식: 수업 형식 중 (가)와 (나)는 동일하게, (다)에서 실험군에게는 앱으로, 대조군에게는 기존 형식인 이메일로 과제와 피드백을 제공
 - 대조군: 수업이 끝나면, 퀴즈를 주어 풀 뒤, 이메일로 제출하게 함.

[14~20] Make a sentence like <보기>.



- 14. 가: 시계 뒤에 책이 있어요?
나: _____
- 15. 가: 서랍장 아래에 소파가 있어요?
나: _____
- 16. 가: 창문(window) 밖에 고양이 있어요?
나: _____
- 17. 가: 컵(cup)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 실험군: 수업이 끝나면, 세종학당 초급 앱의 해당 문법 연습문제와 게임을 풀게 함. 문제를 풀고 아래 내용과 같이 캡처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한 피드백 제공



5. 관찰 및 분석

1) 과제 제출

- 4주의 실험 기간 동안 실험군은 빠진 적이 없으나 대조군은 모두 1번 이상 미제출.
- 과제가 성적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 두 가지로 해석 가능. 첫째, 기존 과제 제출 형식보다 앱 사용이 더 흥미롭게 여겨져 과제 제출에 적극성을 띤 것으로. 둘째, 실험군은 교수가 특별히 자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 이것이 성실한 제출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음.
- 후자라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됨.
- 수업에 대한 적극성, 성실성 판단 근거

2) 변동 사항

- 서면 인터뷰 이후 2주간의 수업에서 학습자 수준을 일부 재구성(실험군에는 영향을 안 끼침)

-수업 포기: 1급 하 학생 3인, 1급 상 학생 1인 포기. 최종 20인 중 대조군은 17명

3) 필기시험: 성취도 체크

-4월 20일 중간고사(필기시험) 현재, 실험군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판단됨

등수	성적	학생	최초 등급
1	20	알렉산드라	1급상
1	20	크세니아	1급중
3	18	*****	1급상
4	16	*****	1급상
4	16	*****	1급중
6	14	*****	1급중
7	12	*****	1급중
7	12	*****	1급중
7	12	다리아	1급하
10	10	*****	1급중
10	10	*****	1급중
12	8	*****	1급하
12	8	*****	1급하
12	8	*****	1급하
15	6	*****	1급중
15	6	*****	1급하
15	6	*****	1급하
15	6	*****	1급하
19	4	*****	1급하
19	4	*****	1급하

-크세니아의 경우, 수업 중 대답 능력도 향상됨. 높아진 자신감 관찰.

-알렉산드라는 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됨.

-다리아는 수업 중 말하기 능력 향상 면에서는 눈에 띄는 바가 없었으나 1급 하 중에서는 1 위, 최초 1급 중 판정을 받았던 학생들 일부보다도 성적이 높아짐.

4) 실험군 서면 인터뷰 2차(자유로운 대답)

-질문: 앱으로 과제하니 어땠는지

-기존 과제보다 앱 사용에 과제에 흥미를 느낌. 특히 게임 기능을 좋아함(3인).

-어휘 복습도 앱으로 하고 싶다고(다)

-연습 문제가 더 많았으면(알, 크)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앱에서 공부했다고(크)

-러시아어 설명이 있어서 좋았다고(다)

-다른 앱도 다운받았다고(알)

5) 본 실험의 문제점 및 결과에서의 논의점

- 최초 등급 판정의 경우 서면과 구두 테스트였으나 수업 능력 향상 확인은 필기시험 형태인 바,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실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

- 성취도가 실제 향상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대조 실험이 필요

- 1급 상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업 성취도 판별법
- 1급 하 학생들의 경우 향상될 내용이 더 다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
- 가설은 틀리지 않았으나 실력 향상이 반드시 앱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6)연구자 노트

- 대조군 가운데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있었음. 더 열정적인 학생이었음. 획일적인 수업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앱과 같은 도구가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수업의 문법과 앱의 문법 진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본 연구 실험에서는 진도가 유사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게임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방안은?
- 앱이 과연 불안감 해소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앱보다 더 좋은 도구는?
- 본 실험 설계시 해결해야 할 사항 많음.

6. 결론 도출

V. 결론

<참고문헌>

- 강경민 외(2017),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러시아인 학습자의 인식 연구, 국제한국어교육, 3(1), 35~76쪽.
- 김현식 외(2017). 스페인어 교수학습을 위한 이러닝 통합 학습 콘텐츠 프레임의 개발과 기대 효과. 중남미연구, 36(3), 1-33.
- 민경아, 박서옥(2020).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강의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7:3, 1-36.
- 이영희(2020), 모바일 기반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7, 119-139.
- 이유미, 이연정(2019).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과 한국어교육용 앱(APP) 사용의 관련성 연구, 화법연구, 43, 55-87.
- 클로츠코바 다리야(2020),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韓國外國語大學 校 大 學 院 석사논문.
- 함계임(2020),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독학 겸용 한국어교재의 문법 기술 현황과 개선 방안, 교육문화연구, 26 (5), 1195-1217.
- Walsh, J. & Reese, B. (1995). Distance Learning's Growing Reach. T.H.E. Journal, 22(11), 58-62. Retrieved April 26, 2021 from <https://www.learntechlib.org/p/78941/>

〈토론〉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의 앱 도구 사용에 관한 파일럿(pilot) 연구 -우랄 연방 대학교 한국어 수강자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금숙(상지대학교)

이 연구는 우랄 연방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화상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교육용 앱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온라인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시대의 교육 환경에 대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자께서 진행한 실험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자도 연구자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발표 요지를 읽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실험군 학습자들의 실력 향상

첫 단계에서는 서면과 구두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험 후에는 필기시험을 통해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특히 말하기, 쓰기, 필기시험 등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실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검증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험 전과 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필기시험 이외에 구두 인터뷰나 다른 방법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

5쪽에서 실시간 다중 화상 시스템 강의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라), 마)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면 수업이나 화상 강의와의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실험군의 과제 제출

실험군이 대조군과는 달리 실험 기간 동안 과제를 모두 제출한 것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연구자께서도 학습자를 오래 가르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적극적이거나 성실한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응했다면 어느 정도 적극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대조군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실험군이 실험 전에 과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와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4. 앱 활용과 학습자의 불안감 해소

현재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등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활용이 학습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검증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실험 전과 후에 느끼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또는 화상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파악하면 앱 활용을 통한 불안감 해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강순행(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Italia)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속격명사구들이 보여주는 위미역 위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어 속격 명사구가 가지는 의미적 중의성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명사구 내에서 속격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보이는 논항들의 선형성은 통사구조 내 위미역 위계에 따른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격구문의 의미와 분류, 속격 표지의 실현과 탈락 그리고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속격구문의 가지는 논항의 위미역 위계를 어떻게 통사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속격의 특징

한국어 속격 명사구에 대한 연구는 그 구성과 관련하여 핵명사와 선행명사 간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속격표지 ‘의’의 실현 양상과 그 조건을 다룬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1 한국어 속격의 의미와 분류

속격은 명사 간의 소유 관계의 의미에만 제한되지 않고, 속격 표지 ‘의’에 의해 연결된 명사들의 관계에 따라 ‘소속(누리의 학교), 존재(새들의 천국), 관계(누리의 누나), 청소년의 범죄(행위주역), 정원의 나무(장소), 대구의 사과(근원/출처), 개의 주인(대상), 약간의 물(양), 파란 눈의 여자(외양), 평화의 세계(특성)…’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통사 의미적 관계를 바탕으로 속격 명사구를 논항구조와 비논항구조로, 논항구조에 따른 속격명사는 기저 문장의 변형에 따라 다시 주어적, 목적어적 그리고 부사적 속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a. 학생의 질문	“학생이 질문하다”	(주어적 속격)
b. 역사의 연구	“역사를 연구하다”	(목적어적 속격)
c. 주말의 산책	“주말에 산책하다”	(부사적 속격)

2.2 한국어 속격의 형태: ‘의’의 수의적 출현

속격표지 ‘의’는 수의적 출현과 관련하여 한국어 속격구문은 아래의 예처럼 ‘의’의 출현이 의무적인 경우와 수의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 a. 누리*(의) 공부 “누리가 공부하다”
- b. 한국어(의) 공부 “한국어를 공부하다”
- c. 한국어(의) 발표 “한국어에 대한 발표하다”
- (Cf. 한국어 발표 “한국어로 발표하다”)

"N₁+의+N₂"로 구성된 한국어 속격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핵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선행명사의 통사적 관계에 따라 ‘의’의 출현이 결정될 수 있으며, 아래의 예 (3d, 3e)처럼 비논항적 요소와 결합된 속격명사구에서는 탈락이 불가능하다(박정섭 2002: 913-914).

3. a. 포로(의) 석방
- b. 화물차(의) 운전
- c. 고양이(의) 사진
- d. 최신-* (의) 보호
- e. 충격*(의) 패배

신선경(1999: 70-72))에서는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경우를 서술관계를 갖는 예와 비서술적집합 관계를 갖는 예로 구분하고 있다.

4. a. 시계*(의) 정확성/한복*(의) 아름다움/컴퓨터* (의) 편리함
- b. 철수*(의) 오해/봉사자들*(의) 활동
5. a. 감격*(의) 우승/사랑* (의) 학교/사랑의 묘약/행운의 여신 (비유적 표현)
- b. 이순신*(의) 거북선/피타고라스*(의) 정리/셰익스피어*(의) 햄릿 (고유명사화된 명사구)
- c. 3분* (의) 1/소득* (의) 10%/소리* (의) 파장/빛* (의) 속도 (전체와 부분)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경우는 핵명사와 수식명사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아래와 같다(최기용 1995, 김인균 2003, 박정섭 2003, 박소영 2014 등). 예 (5)에서 선행명사가 보통명사의 소유자역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5a)처럼 임의적 출현이 가능하지만 소유관계를 나타내더라도 핵명사의 위치에 고유명사가 대치되는 경우에는 ‘의’가 생략될 수 없다(박소영 2014: 613-614).

6. a. 이광수(의) 소설 (Cf. 이광수*(의) 무정)
- b. 철수(의) 신발 (Cf. 철수*(의) 나이키)

신선경(1999: 76-77)은 ‘의’의 출현이 수의적인 경우를 집합관계 명사구들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7. a. 교회(의) 종소리/한국(의) 영화 (처소와 사건의 관계)
- b. 어머니(의) 손/인간(의) 뇌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신체 부분)
- c. 영희(의) 동생/ 우리(의) 엄마 (양도할 수 없는 소유, 친족 관계)

- d. 철수(의) 그림/ 외삼촌(의) 집 (양도할 수 있는 소유)
- e. 고등학생(의) 절반 (전체와 부분 관계)
- f. 한번(의) 실패/다섯 잔(의) 술 (수와 대상의 관계)

소유자역 논항이 다른 논항과 함께 나타나는 (7a)와 같은 경우에는 ‘의’의 탈락이 자유롭지 않다(박정섭 2003: 229).

- 8. a. 수집가??(의)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 b. 수집가??(의) 렘브란트의 초상화

지금까지 논의된 속격표지 ‘의’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 a. ‘의’의 실현은 선행 명사가 가지는 논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b. 속격이 명사구에서 주어역할을 하는 경우는 ‘의’가 실현되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 d. ‘의’의 실현은 비논항적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비논항적 요소와 결합된 속격 명사구에서 ‘의’의 실현은 의무적이다.
- e.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속격명사구에서 ‘의’의 실현은 의무적이다.
- f. 선행 명사가 뒤 따르는 일반 명사에 대해 소유자역의 의미를 가질 때 ‘의’의 실현은 임의적이다.
- g. 소유 관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고유 명사가 핵명사인 경우에는 ‘의’의 실현은 필수적이다.
- h. 속격이 처소와 사건 사이의 관계, 양도 할 수 없는 소유의 관계, 신체의 일부와 친족 관계, 양도 할 수 없는 소유의 관계, 전체와 일부 관계를 나타낼 때 ‘의’의 출현이 임의적이다.
- i. 속격이 속격명사구에서 유일한 논항인 경우는 ‘의’의 출현이 임의적이지만 다른 논항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무적이다.

3.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중의성과 의미역 위계

3.1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중의성

아래의 예 (10a)에서 ‘누리’는 ‘집을 소유 한 사람’, ‘집을 설계 한 건축가’ 또는 단순히 ‘누리가 정말 좋아해서 매일 언급하는 집’이거나 ‘매일 가는 집’일 수도 있다. (9d)에서도 ‘누리’는 ‘선물을 만들거나 준비한 사람, 선물을 받을 사람 또는 선물을 선택하거나 계획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a. 누리의 집
- b. 누리의 선물

한국어 속격 명사구의 의미적 중의성과 관련하여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일 속격이 명사구에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면, 속격이 중첩된 경우에도 중의성이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속격의 위치에 따라 해석적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핵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 사이의 어순 제약, 즉 의미역 위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 11. 그의 다빈치의 초상화"
 - a. 그가 소유한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소유자역)행위주역)

- b. 그가 소유한 누군가가 다빈치를 그린 초상화 (소유자역>대상)
- c. 그가 다빈치를 위해 그린 초상화 (행위주역>대상)

12. [소유자역] > [행위주역] > [대상] > [명사]¹⁾

3.2 한국어 속격의 의미역 위계

Grimshaw(1990)가 제안한 의미역 위계 "Agent>Experiencer>Goal/Source/Location>Theme"를 바탕으로 한국어 속격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자.

13. [Experiencer>Theme>NP]

- a. 히틀러의 유대인의 증오
- b. *유대인의 히틀러의 증오
- c. 한국인의 김치의 사랑
- d. *김치의 한국인의 사랑

14. [Experiencer>Source>NP]

- a. 그들의 이별의 슬픔
- b. *이별의 그들의 슬픔

15. [Agent>Source>Theme>NP]

- a. 한국회사의 이탈리아의 올리브유의 수입
- b. *이탈리아의 한국회사의 올리브유의 수입
- c. *올리브유의 한국회사의 이탈리아의 수입

16. [Agent>Time>NP]

- a. 아버지의 주말의 산책
- b. *주말의 아버지의 산책

17. [Time>Theme>NP]

- a. 주말의 한국어의 수업
- b. ??한국어의 주말의 수업

18. [Agent>Location>NP]

- a. 누리의 베네치아의 여행
- b. *베네치아의 누리의 여행

19. [Agent>Instrument>Theme>NP]

1) 이러한 어순은 앞장에서 소개된 명사구의 문법성을 바르게 예측할 수 있다.

- i. a. 수집가의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 b. *아리스토텔레스 수집가의 초상화
- c. 수집가의 램브란트 초상화
- d. *램브란트의 수집가 초상화

- a.? 어머니의 물로의 이불의 빨래
- b. *물로의 어머니의 이불의 빨래
- c. *이불의 어머니의 물로의 빨래

20. [Patient>Goal>NP]

- a. 한국 자동차의 유럽의 진출
- b. *유럽의 한국 자동차의 진출

21. [Agent>Patient>Goal>NP]

- a. 한국 정부의 쌍용 자동차의 해외의 매각
- b. *쌍용 자동차의 한국 정부의 해외의 매각
- c. *해외의 한국 정부의 쌍용 자동차의 매각

지금까지 논의된 논항의 계층성을 포함하는 의미역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²⁾

22. [Possessive>Agent/(Experiencer)>Patient>Time>Instrument>Location>Theme>NP]

4.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DP 구조

4.1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

4.1.1 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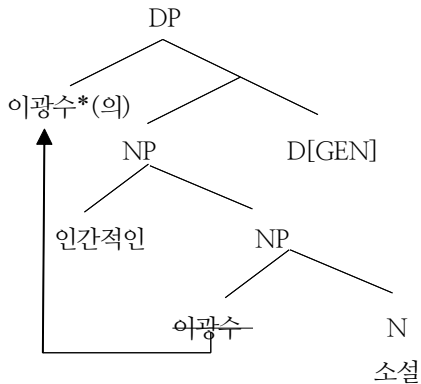
(23b)과 같은 명사구에 대한 Abney(1987)의 DP분석을 바탕으로 박소영(2014: 621-623)은 (24a)와 같은 형용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를 (24b)처럼 분석한다.

- 23. a. [NP Determinante N] (명사구 NP분석)
- b. [DP D NP] (명사구 DP분석)

2) Agente와 Experiencer 그리고 “Source/Time/Location과 Goal”사이의 어순은 테스트되지 않았다.

24. a. 이광수의 인간적인 소설

b.



위 구조 (24)에서 소유주 논항 ‘이광수’는 NP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 생성되지만 격의 인가와 속격 ‘의’의 음성적 실현을 위해 DP의 지정어 위치로 의무적 이동을 겪게 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Aboh(2010)와 Kayne(1994)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인구어 속격 명사구는 크게 “소유주>소유물” 또는 “소유물>소유주”의 순서로 문장에 나타나는데 기본 어순은 영어의 예 (25)처럼 “소유주>소유물”이며 “소유물>소유주”의 어순 (25b)는 소유물이 속격을 부여받기 위해 소유주의 좌측으로 이동된 결과로 분석한다.

25. a. Mary’s picture

b. A picture of Mary

26. a. [DP[D°[IP DP Mary’[I°s [DP picture]]]]]

b. [DP[D°A [FP [DP picture]][F of [IP DP Mary [I°[DP picture]j]]]]]

위의 예에서 ‘s가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소유물이 소유주를 선행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물인 *picture*가 소유주인 *Mary*를 선행하는 기능투사구인 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기능핵 *of*로부터 보어인 *Mary*가 격 부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윤(2016: 203-204)은 (27a)와 같은 한국어 속격명사구를 (27b)처럼 기능구조 IP를 포함하는 DP구조 내에서 속격을 분석한다.

27. a. 학생의 가방

b. [DP[D°[IP DP 학생[I°의 [DP 가방]]]]]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의 분포가 아래의 예처럼 광범위하므로 단순히 ‘의’를 속격 표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한 안덕호(2012: 610-611)의 논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 | | |
|---------------|--------|
| 28. a. 친구의 집 | (소유자역) |
| b. 한 권의 책 | (수량) |
| c. 내일의 날씨 | (시간) |
| d. 제주도의 날씨 | (장소) |
| e. 기쁨의 순간 | (수식어) |
| f. 영화배우와의 인터뷰 | (동반자) |

- g. 돌로의 공격 (도구)
- h. 미국으로부터의 소식 (기원)
- i. 미국으로의 여행 (도착점)

위의 예 (28a)에서 선행명사 ‘친구’는 핵명사 ‘집’의 논항으로 소유자역 의미역을 받으므로 ‘의’를 격조사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예들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선행명사들을 의미역을 부여받는 논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8f)–(28g)에 들은 ‘의’의 선행요소로 부사격 조사들이 오고 있다. 부사격 조사들의 범주를 후치사라고 한다면 ‘의’와 결합한 요소를 후치사구로 분석해야 하는데, 후치사구에 격이 표시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Cf. 김용하 2019: 39–40).

4.1.2 명사핵 선행 굴절형과 명사 수식어 표지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안덕호(2012)는 명사핵을 선행하는 요소들에 실현되는 ‘명사핵 선행 굴절형 (prenominal inflection)’으로 관형사형어미 ‘ㄴ’과 같은 요소로, 모두 관형형 요소로서 동일한 통사적 지위를 갖는다고 분석한다(Ibid., 613–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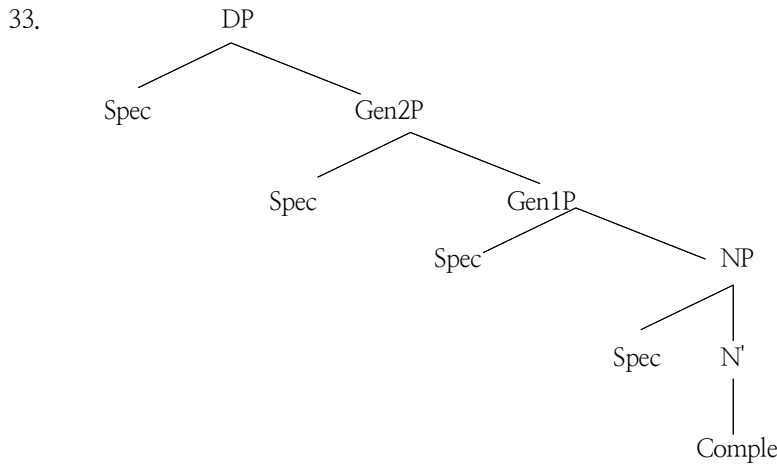
29. ‘의’와 ‘ㄴ’은 모두 명사핵 선행 환경(prenominal context)에서만 출현이 가능하다.
- a. 영이가/*의 [[츨스키의] 책]을/*의 철수에게/*의 주었다.
 - b. 영이가 [[철수가 만난] 아이]를 만났다/*만난.
30. ‘의’와 ‘ㄴ’은 모두 전체 형태론적 복합체내에서 마지막에 부가되는 접사들이다.
- a.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들만의)/ *어린이-들-의-만/*어린이-의-들-만
 - b. 아끼-시-더-ㄴ (아끼시던)/*아끼-시-ㄴ-더/*아끼-ㄴ-시-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ㄴ’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의’는 [-V] 속성을 가지는 요소에만, ‘ㄴ’은 [+V]의 속성을 가지는 요소에만 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루는 이형태적 변화형(allomorphic variant)의 관계라는 것이다. 홍용철(2013) 또한 한국어 ‘의’는 아래의 예 (31)처럼 ‘의’와 결합한 요소가 관계절과 동일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격조사가 아닌 관계절 표지와 같은 범주의 수식어 표지로, 또한 (32)처럼 행위주역 논항인 “정부의”가 관계절 앞에, 대상 논항인 “TGV의”가 관계절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사 확장 범주구조에서 기능범주 영역의 부가어 위치에 나타나는 요소로 보고 있다(Ibid., 339–340).

31. a. {철수의, 획기적인} 이 모든 책들
 b. 이 {철수의, 획기적인} 모든 책들
 c. 이 모든 {철수의, 획기적인} 책들
32. a. 갑작스런 정부의 TGV의 도입
 b. 정부의 갑작스런 TGV의 도입
 c. 정부의 TGV의 갑작스런 도입

그러나 속격 명사구 GenPs를 NP와 DP사이에 부가되는 요소로 분석한다면 그 통사구조는 아래의 (33)과 같을 것이며 (강순행 2009: 17), 이러한 통사구조로는 한국어 명사구에서 관계절과 서로 다른 유형의 형용사들이 공기하는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어순제약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34. a. [누리가 산] 빨간 새 차 [RC>AP₁>AP₂> NP]
- b. ??빨간 [누리가 산] 새 차 [RC>AP₁>AP₂> NP]
- c. ??새 [누리가 산] 빨간 차 [RC>AP₁>AP₂> NP]
- d. ??[누리가 산] 새 빨간 차 [RC>AP₂>AP₁> NP]

위의 예에서 초점(Focus)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4b, 34c)예들은 비문 처리될 수 있으며, 예 (34d)는 형용사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어순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 장에서 확인한 명사구 내에서 속격에 의해 실현되는 논항의 선형성에 따른 통사구조의 계층성을 설명하기 위해 명사구내 요소들을 NP와 DP 층위에 상정된 기능구조F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요소로 분석한 Cinque(2010)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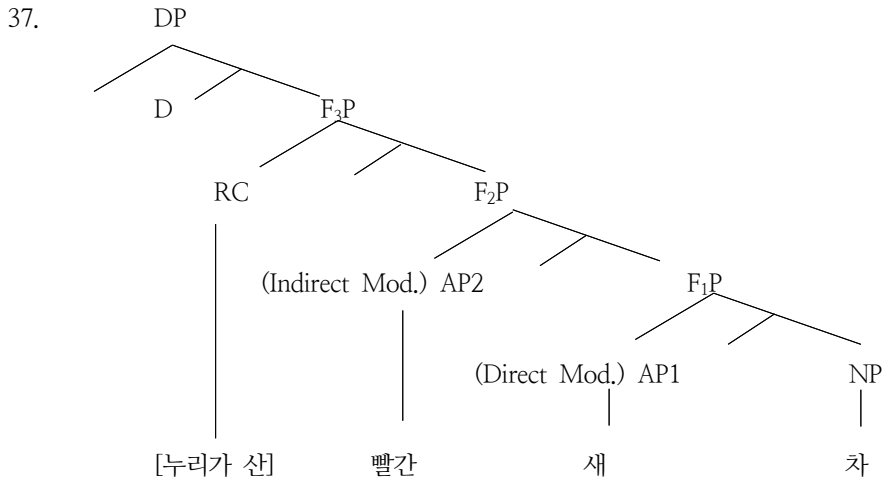
4.1.3 제안 : 한국어 속격의 지정어 분석

먼저, 속격 명사구 GenP와 관계절 RC 그리고 형용사 AP를 포함하는 명사구의 어순을 다음과 같을 것이다.

- 35. a.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빨간 새 차
- b. ??누리의 내가 어제 본 빨간 새 차
- c. ?? 멋진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새 차
- d. ??빨간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새 차
- e. ??새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빨간 차
- f. ?내가 어제 본 멋진 누리의 빨간 새 차
- g. ?내가 어제 본 빨간 누리의 멋진 새 차
- h.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멋진 새 차
- i.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멋진 새 빨간 차
- j. ??내가 어제 본 누리의 빨간 새 멋진 차

- 36. [RC>GenP(PossessiveP)>AP₁>AP₂>AP₃>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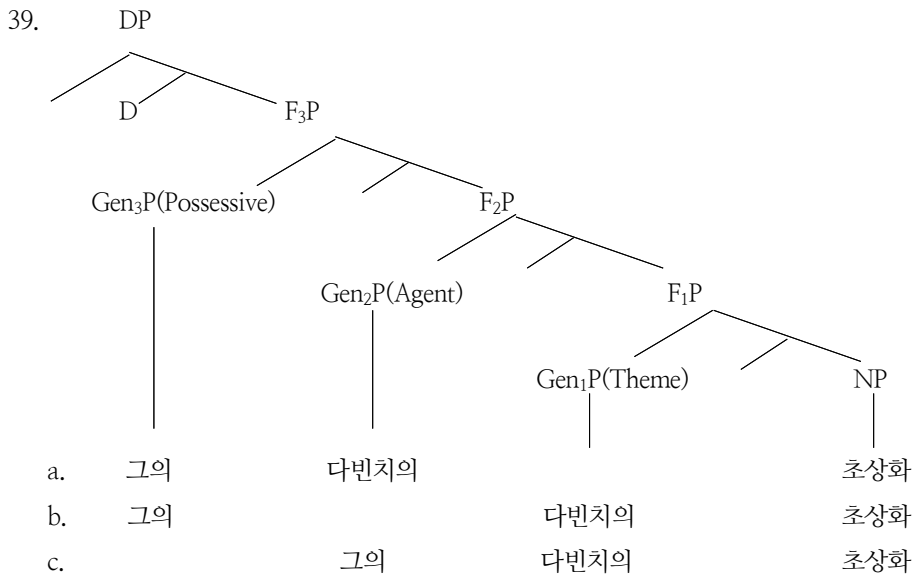
Cinque(2005)의 “형용사의 이원적 분류”를 따르면 명사구 내 요소들의 선형적 어순은 구조적 계층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직접 수식 형용사와 간접 수식 형용사로 구분하여 NP와 DP 사이에 위치한 FP의 Spec에 위치하는 지정어적 요소로 (37)처럼 분석할 수 있다.



이 DP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속격구문 GenPs를 형용사와 관계절의 위치처럼 DP와 NP 사이 SpecFP에 위치하는 요소로 고려한다면 속격의 가지는 의미론적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8)의 의미적 중의성은 (39)에서처럼 구조적 위치에 따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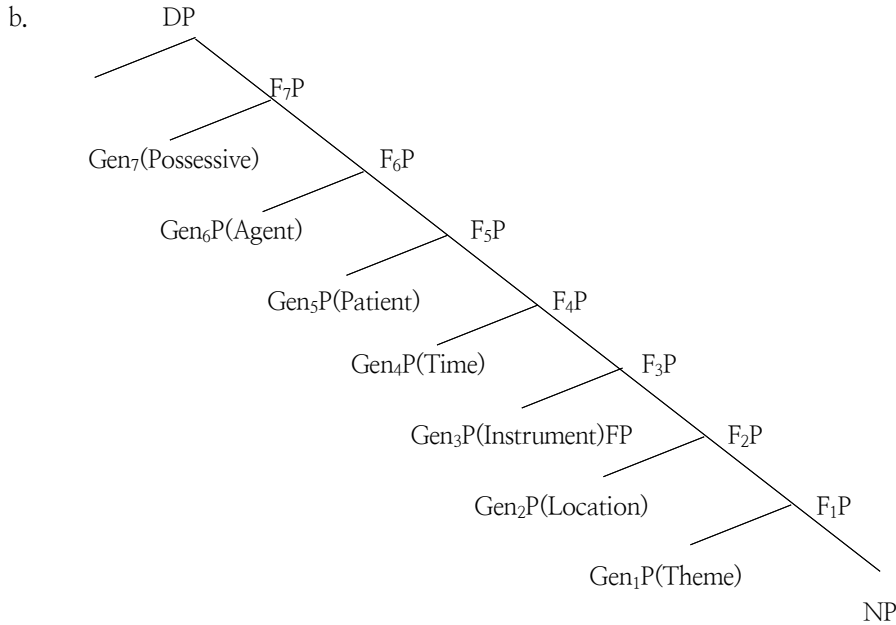
38. 그의 다빈치의 초상화

- a. 그가 소유한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Possessor] > [Agent] > [N]
- b. 그가 소유한 누군가가 다빈치를 그린 초상화 [Agent] > [Theme] > [N]
- c. 그가 다빈치를 위해 그린 초상화 [Agent] > [Theme] > [N]



또한, 2.2장에서 논의된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 (40a)는 (40b)와 같은 통사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0. a. [Possessive > Agent > Patient > Time > Instrument > Location > Theme > NP]



5.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한국어 속격이 나타내는 논항들의 의미역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며 이를 통사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Cinque (2010)의 DP구조 내에서 기능구조 FP의 지정어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2.1장에서는 한국어 속격구문의 유형을 핵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었다. 2.2장에서는 속격의 가지는 논항구조와 통사적 특징에 따라 속격 표지 ‘의’의 실현과 생략 조건들을 관련 기존연구들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한국어 속격구문의 의미적 중의성과 의미역 위계를 Grimshaw(1990)와 Longobardi(2001)에서 제시된 “[소유자역]>[행위주역]> [대상]>[명사]”의 어순을 바탕으로 테스트하여 “[소유자역]>[행위주역]/[경험주역]>[피행위주역]>[시간역]>[도구역]>[장소역]>[대상역]>명사]”의 결과를 얻었다. 4장에서는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하여 박소영(2014)과 조성운(2016)에서 논의된 “격분석”과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를 명사핵 선행 굴절형과 명사 수식어 표지로 분석한 안덕호(2012)와 홍용철(2013)의 제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가 격조사 또는 격표지가 아니라 명사구 내에서 핵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의 ‘ㄴ’과 관계절과 같은 명사 수식어 표지로 취급하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지만, 명사구에서 형용사와 관계절이 또는 형용사들이 중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어순의 선형성과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들의 의미역 위계를 통사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가 부착된 명사구 즉, GenPs가 단순히 명사구NP와 한정사구 DP 층위 사이에 부가되는 요소가 아니라 Cinque(2010)가 제안한 DP구조 내 기능구조 FP의 지정어로 분석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 강순행. 2006. 이탈리아어 명사구의 기능구조. *이탈리아어문학* 18. 1-37.
- 강순행. 2008.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명사구내 통사적 계층성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25. 1-34.
- 강순행. 2011. 이탈리아어 속격구문 연구: 통사구조 내 의미역 위계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33. 1-27.
- 김용하. 2019. 한국어 속격 조사 '의'의 지위에 대한 관건. *현대문법연구* 98, 37-50.
- 김인균. 2003. 관형명사구의구조와의미관계. *국어학*41, 198-223.
- 김지홍. 1995. 명사구의 확장과 그 논항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20. . 81-177.
- 목정수. 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437-470.
- 박소영. 2014. 한국어 속격 '의'의 실현과 DP가설. *생성문법연구* 24. 613-629.
- 박정섭. 2003. 명사구에서의 논항 실현에 관한 고찰-불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16. 223-248.
- 박정섭. 2003. 속격 표지 '의'의 수의성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16. 3-18.
- 박호관. 2001. 국어 명사구의 유형과 통사구조. *우리말글* 23. .25-48.
- 신선경. 1999. 명사구 형성과 속격 표지 '-의'. *울산어문논집* 13·14, 55-80.
- 최경봉. 1995. 국어 명사 관형구성의 의미결합 관계에 대한 고찰. *국어학* 26. 33-58.
- 시정곤. 2003. 단어결합과 의미역 위계구조. *언어연구* 19-2. 271-287
- 안덕호. 2012. 최소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유격: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 37. 607-621.
- 이선웅. 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서울: 월인.
- 이종근. 2015. 한국어 속격표지 '의'의 분포와 속격의 본질. *생성문법연구* 25, 277-306.
- 조성윤. 2016. 이탈리아어 di 구문의 통사구조 연구: 장소 전치사 구문과 속격 구문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48. 201-223
- 최기용. 1996. 의미역 배정과 관련된 명사의 성격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6. 85-119.
- 홍용철. 2010.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 *생성문법연구* 20. 27-50.
- 홍용철. 2013. 소유격 표지 “의”의 분포와 본질. *생성문법연구* 23. 321-345.
- Abeny, S.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Ph.D. dissert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Aboh, E.O. 2010. *The P Route in Cinque G. & Rizzi L. (ed.s) Mapping Spatial PPs,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ume 6, Oxford Studies in Comparative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pp. 225-260.*
- Cinque, G. 2005b. "The Dual Source of Adjectives and XP-vs. N-Raising in The Romance DP". Ms., University of Venice.
- Cinque, G. 2010, *The Syntax of Adjectiv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 2000. "A Note on Prepositions, Complementizers, and Word Order Universals". In *Idem Parameters and Universals*. 314-32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obardi, G. 2001, "The structure of DPs: Some Principles, Parameters, and Problems." In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yntactic Theory*. (eds.) by Mark Baltin & Chris Colli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p. 562-603.

〈토론〉 “한국어 속격 구문 연구: 통사적 지위와 의미역 위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용(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어 속격의 통사적 지위와 속격명사구들이 보여주는 의미역 위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속격 구문의 의미와 분류, 속격 표지의 실현과 탈락 그리고 ‘의’의 통사적 지위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속격구문이 가지는 논항의 의미역 위계를 통사구조 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의에도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그리고 독자의 부족으로 본 연구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본 연구는 한국어 속격의 의미와 분류에 있어서, 선행 연구의 논의들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내용 가운데에 이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부분과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속격 ‘의’의 의미 분류에 의거하여,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 한국어 속격의 의미적 위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미적 중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Grimshaw의 의미역 위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속격이 가지는 의미역 논항의 위계를 제시하셨는데, 의미역 논항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로 제시된 구문 가운데 비문법성에 있어 확실하지 않은 구문들의 최종 위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속격의 통사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형용사와 관계절의 위치처럼 FP의 spec에 위치하는 지정어적 요소로 속격을 설정하여, 의미론적 모호성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 연구의 설정에 동의합니다. 제시하신 구조에 의거하여, 앞의 비문법적인 구문들이 어떻게 비문법적으로 판정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된다면 그 효용성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어 경험표현 연구

함계임(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경험 표현으로 가르치는 문형은 ‘-아/어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없다’이다. ‘-아/어 보다’의 경우 대부분 교재에서 초급단계에 교수하고, ‘(으)ㄴ적이 있다/없다’는 초급 혹은 중급 초반에 교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재에서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함을 언급하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문형이 결합한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도 있다. 그러나 세 문형 간에는 사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상호간의 교체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 1) 가. 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적이 있어요.
- 나. 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해 봤어요.(*).
- 다. 저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해 본 적이 있어요.(?)

(1가)는 과거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던 순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1나)와 같이 말하지는 않는다. (1다)의 경우는 자연스럽게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세 문형이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없다’,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 상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과 결합하는 동사의 성향을 분석하여 의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네이버 뉴스에서 2021년 4월 15일~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신문 기사 제목에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없다’와 두 문형이 결합된 ‘-아/어 본 적이 있다’가 포함된 것을 수집한 후 중복되지 않는 동사로 된 문장 100개씩을 선정하였다. 세 문형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문형에 결합된 동사를 완료성 여부와 순간성 여부로 나누어 동사의 어휘상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각 문형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상적 속성을 파악하여 의미 변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추출은 말뭉치에서 이루어지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형은 국립국어원 말뭉치에 소수만이 검출되어 연구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어자료에서 예문을 찾게 되면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소 문어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신문 기사 제목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2. 관련 연구들

‘-아/어 보다’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이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어 보다’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로 ‘-아/어 보다’가 시행의 의미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보조용언의 하나인 ‘-아/어 보다’를 통사적으로 살펴본 정언학(2006)에서 ‘-아/어 보다’의 최초의 의미는 ‘시행’임을 확인하였고, 이때의 결합동사는 타동사만 가능했지만 현대의 ‘-아/어 보다’의 의미는 시행, 경험, 가정의 의미로 결합가능한 어휘의 종류는 모든 동사와 일부 형용사, 계사라고 하고 있다. 손세모돌(1996)연구에서는 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중 ‘-아/어 보다’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시행과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이후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호광수(2003)에서는 주어 의지 개입 여부를 ‘시행’과 ‘경험’의 차이로 보고 있다. 정연희(2017)에서는 ‘-아/어 보다’의 문법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의미의 변화가 문법화의 결과이며 각 의미 변화 단계에 어떤 문법화 기제가 적용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의 연구는 조영보(2019), 김진호(2020), 강현화외(2017)이 있다. 조영보(2019)에서는 학습자말뭉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아/어 보다’의 ‘경험’의미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을 지적하고, 선후행절 시제와 화청자의 관계, 형용사 어간 사용을 기준으로 ‘-아/어 보다’의 담화 기능을 정리하였다. 김진호(2020)에서는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를 비교였다. 강현화 외(2017)에서도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를 부정적 경험 여부, 주어 결합 제약, 서술어 결합제약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연구들은 ‘-아/어 보다’의 의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부 ‘-아/어 보다’와 ‘-(으)ㄴ적이 있다’의 비교 연구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에 한정하여 살펴 본 연구들이라 각 문형이 가진 의미들, 두 문형이 결합한 ‘-아/어 본 적이 있다’에 관한 연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한국어 경험 표현들의 의미 분석과 변별

3.1 한국어 경험 표현의 의미 분석

3.1.1 ‘-아/어 보다’의 의미

앞서 2장에서 ‘-아/어 보다’의 의미는 시행에서 출발하여 경험, 가정의 의미로 확대됨을 확인하였다. 가정의 의미는 구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시행과 경험의 의미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정연희(2017)에서는 시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주관성이 더해지면서 동작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경험의 변화가 관습화되면서 상태에 대한 경험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시행에서 시작하여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시행나 경험으로 해석되는 중의적 상황을 거쳐 경험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대상 문장들이 시행과 경험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리해보도록 하겠다. 손세모돌(1996)에서 경험의 의미를 선별하는 방법을 5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당하다’, ‘경험하다’ 등의 경험이 전제된 특별한 어휘와 결합하는 경우에 ‘-아/어 보다’를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 (예: 어제, 작년에..)와 공기하는 경우, 넷째, 주어의 의지가 결여된 경우도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동사 이외의 형용사, 명사+이다의 경우도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5가지 조건 중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경험의미라고 했으나 과거시제를 사용한 시행의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 2) 가. 360가지 색상 갖춘 비스OO 냉장고, 골라 봤다.
- 나. 2017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조어 5개를 꼽아 봤다.
- 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부동산의 흐름을 예상해 봤다.

(2가-다) 모두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지만 주어의 경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주어가 한번 해 보았음, 즉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경험’의 의미를 갖는다는 조건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시행이 반복되다 보면 행위가 누적되어 경험이 될 수 있다.

- 3) 가. 그러면서 “KBO리그 시절 큰 경기에서 많이 던져 봤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 나. ‘라스’재재 “눈에 띄는 빨간 머리? 사실 빨주노초파남보 다 (염색) 해 봤다”
- 다. 신입사원 10명 중 9명 “퇴사 고민해 봤다.” 퇴사 결심까지 약 3개월.

(3가)는 ‘많이’라는 부사가 더해져 경기에서 다수의 공을 던져 본 경험을 드러내주고 있다. (3나)는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번 염색을 반복했다는 의미로 다수의 염색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3다)는 90%의 많은 사람들은 퇴사를 생각해 봤다를 통해 다수의 시행이 누적되어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안에 다수의 행위(여러 사람의 행위 혹은 반복적 행위)가 경험을 나타내 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세모돌(1996)에서 제안한 5가지 경험의 의미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과거시제’를 제외하고 (3가-다)에서 나타나는 ‘복수(複數)(複數)의 행위’를 추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어 보다’의 의미를 경험으로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의 5가지이다.

- 첫째, 경험이 전제된 특별한 어휘 (예: 당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등)
- 둘째, 시간 부사어와 공기하는 경우 (예: 작년에, 어제, 방금 등)
- 셋째, 주어의 의지가 결여된 경우
(예: 연이은 학폭 논란에 박명수 고백 “돈 뺏기고 많이 맞아 봤다.”)
- 넷째, 동사 이외에 형용사, N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예: 나도 어렸을 때 배가 고파 봤다)
- 다섯째, 행위의 주체가 다수이거나 행위 자체가 다수의 경우
(예: “떡볶이집 하루에 6-7번까지 다녀 봤다.”, 프랑스인 60%가 “봉쇄령 어겨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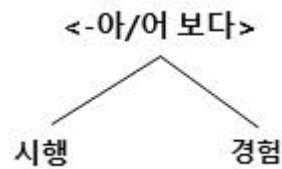
〈표1 ‘-아/어 보다’의 경험판별기준〉

본 연구의 ‘-아/어 보다’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 위의 기준을 중심으로 분류했을 때 100개의 문장 중 35개의 문장이 ‘경험’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65개의 문장이 ‘시행’으로 나타났다. ‘시행’이 더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문어성이 강한 신문 기사이다 보니 주관성이 개입된 ‘경험’보다는 ‘시행’이 더 자주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경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35개 중 33개가 직접 인용에서 사용되었다.¹⁾ 직접인용의 경우 화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서술하다 보니 개인적인 관점이 반영된 ‘경험’의 의미가 자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직접인용이라도 시

1) ‘시행’의 의미로 사용된 65개 중 20개에서 직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아/어 보다’는 ‘시행’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경험’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으며, ‘경험’으로 사용될 때는 주로 직접인용처럼 화자가 직접 서술하는 상황에서 반복된 행위나 주관성이 반영이 되는 경우이다.



〈그림1〉 ‘-아/어 보다’의 사용 상황

3.1.2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의미

‘적’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존 명사로 ‘일부 명사나 어미 ‘-은’, ‘-을’뒤에 쓰여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로 설명하고 있다. 김진호(2020)에서는 경험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며 최근 혹은 가까운 과거에 경험한 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보통은 주어의 의지가 개입되는데 일부 동사 (잃어버리다, 도둑맞다, 넘어지다, 다치다...)는 주어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아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결국 과거 행위가 일어난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하는 동사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종결성]을 가지는 동사가 100개 중에 81개, [+순간성]을 가지는 동사가 100개 중 67개로 행위의 진행이나 과정보다는 행위 결과와 그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적’이라는 의존명사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가.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반대한 적 없어.. 제정되면 최선 다할 것.”
- 나. 하태경 “박형준 딸 홍대 입학한 적도 없다..”
- 다. 변창흠 “자리 연연하지 않지만 사의 표명한 적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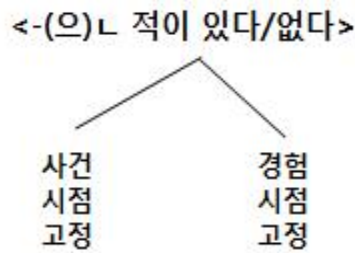
(4가)는 ‘반대한 경우’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반대라고 말한 시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4나)는 ‘입학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입학할 시점에 입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볼 수 있다. (4다)는 ‘사의 표명한 상황, 때’로 볼 수 있고 ‘사의 표명을 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다.

(4가-다)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통은 (4가)와 (4나)같이 문장의 주어가 화자가 아니거나 단체인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간혹 (4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와 화자가 일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사건 시점 고정’이라고 하겠다.

- 5) 가. ‘수미산장’ 김현숙 “사기 당한 적 있어.. 마음 다쳐 힘들었다” 고백
- 나. 김준희 “체지방 10% 복근 만들었지만.. 행복한 적 없었다”
- 다. 박은석 “비글은 키운 적도 없어.. 허위 사실 법적 대응”

(5가-다) 모두 ‘-적’ 대신 ‘-때’, ‘-경험’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모두 화자 자신이 주어와 되고 있다. 화자의 경험을 진행이나 과정이 아닌 경험한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를 ‘경험 시점 고정’이라고 하겠다.

보통 경험표현이라고 하는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이렇게 행위나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순간성][+완료성]을 가진 동사의 경우에는 (4가-다)와 같이 사건 자체에 시점이 고정되고, (5가-다)와 같이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주어이자 화자의 경험에 시점이 고정된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주 기능은 시점 고정이며 주어와 화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사건 시점 고정과 경험 시점 고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 상황

3.1.3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

두 문형이 결합된 형태인 ‘-아/어 본 적이 있다/없다’의 경우 우선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제외하고 ‘-아/어 보다’가 시행 의미인지 경험 의미인지 확인해 보았다. 100개의 ‘-아/어 보다’ 중 89개가 경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1개가 시행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경험’의 의미로 사용된 대다수의 ‘-아/어 보다’가 경험 시점 고정인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하였다. 유사한 의미 범주의 두 문형이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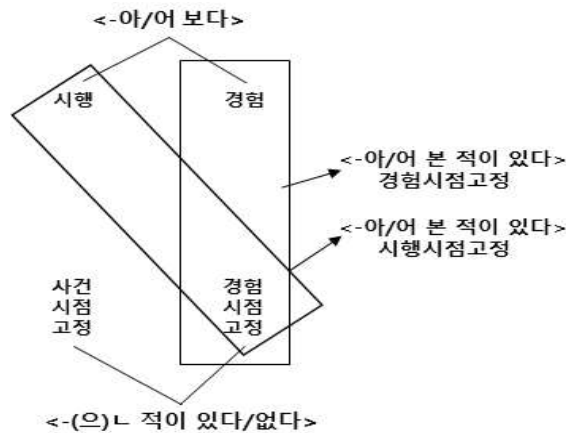
- 6) 가. 이상화 “24년간 스케이트 즐겨본 적 없어” 충격...
 나. ‘달이 뜨는 강’ 최유화 “짜사랑 이렇게 깊게 해 본 적 처음” 종영소감
 다. 김예령 “50넘은 나이지만 50kg 넘어 본 적 없어”

(6가)는 일정 시간(24년) 즐기지 않음이 반복되어 경험으로 해석되고 있고, 여기에 화자와 주어가 동일하여 경험 시점 고정으로 볼 수 있다. 24년간 스케이트를 즐기지 못한 경험이 과거의 한 시점까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화자가 직접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와 주어가 동일하다. 촬영이 끝난 시점까지 짜사랑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6다)는 특정 기간의 반복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화자와 주체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50넘은 시점까지 50kg이 넘지 않는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시행’의 의미의 ‘-아/어 보다’가 ‘-(으)ㄴ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표1〉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아 ‘시행’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3.1.2에서의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는 경험시점고정의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시행과 경험의 양면적인 모습(시행+경험시점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 가. '7년 만의 복귀' 윤정희 “연기 그만둔다는 생각 해 본 적 없다”
 나. 홍정욱 “정치 재개 모색해 본 적 없어.. 가슴의 부름이 없다”
 다. 백종원, 대선주자 깜짝 거론. “꿈 꾀본 적도 없어”

(7가)의 ‘연기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해 보다’는 ‘경험’으로 분류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시행’으로 분류하였으나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여 ‘-(으)ㄴ 적이 있다/없다’에서는 경험시점고정의 조건에 충족하고 있다. (7나)는 ‘정치 재개를 모색해 보다’도 역시 ‘경험분류조건’에 충족되는 사항이 없어 ‘시행’에 해당이 되나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여 ‘-(으)ㄴ 적이 있다/없다’에서는 경험 시점 고정으로 특정 시점까지 정치모색에 대한 시행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7다)는 ‘꿈 꾀 보다’에는 ‘경험’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정시점까지 대선주자를 꿈 꾀 시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가-다)는 선행 보조용언에서는 시행의 의미를 가지지만 후행의 ‘-(으)ㄴ 적이 있다/없다’에는 과거특정시점까지의 시행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 ‘-(으)ㄴ 적이 있다/없다’의 사용상황

3.2 경험 표현의 의미 변별

3.1에서 ‘-아/어 보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 ‘-아/어 본 적이 있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실제 분석 예문에서 동일한 동사가 세 문형 모두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맞다’가 세 문형과 결합한 경우이다.

- 8) 가. 연이은 학폭 논란에 박명수 고백 “돈 뺏기고 많이 맞아봤다”
 나. 김성주 “다투는 부모님 앞에서 까불다 빗자루로 맞은 적 있다”
 다. 여기 아이들, 맞아 본 적이 없으니 때릴 줄도 모른다.

(8가)는 ‘맞다’가 ‘-아/어보다’와 결합한 문장이다. ‘많이’라는 부사가 구타가 자주 반복이 되었음을 말해 주고, 이는 복수(複數)의 시행이 경험이 된 상황이다. (8나)는 ‘맞다’가 ‘-(으)ㄴ 적이 있다’와 결합한 문장이다. 이 경우는 맞은 사건이 자주 발생된 것은 아니고 화자는 맞았던 시점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8다)는 ‘맞다’가 ‘-아/어 본 적이 있다’와 결합한 문장이다. 특정 시점까지의 복수(複數)의 주어가 경험을 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쓰다’가 세 문형과 결합한 경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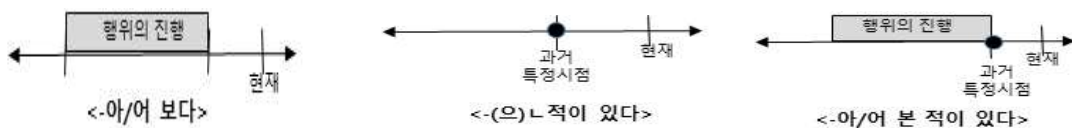
- 9) 가. 탈모예방 헤어제품 두 달간 써봤다
 나. 오세훈 “한 번도 쓴 적 없는 방식 주장”..안측 “뭘 모르는 소리”
 다. 백지영 나이 어린 뉴이스트 JR에게 “연통 난로 써 본 적 있어?”

(9가)는 두 달이라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아/어 보다’가 선택되었다. (9나)는 말하는 시점에서 그간 사용한 경험(기회)이 없었던 방식임을 말하고 있다. (9다)는 말하는 시점 혹은 특정 시점까지 연통 난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부터 특정시점까지 복수(複數)의 이용이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아/어 보다’가 경험의 의미로 사용될 때 결합된 동사의 성향을 살펴보면 [+순간성] 동사와 [-순간성] 동사가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순간성] 동사는 일정시간 행위가 이루어져 시간의 폭이 확보가 되고 있다. [+순간성] 동사의 경우 동사 자체로는 순간적 행위가 이루어져 시간의 폭이 없으나 같이 사용되는 어휘들(복수(複數)의 주체, 긴 시간, 반복의 어휘들)의 영향으로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아/어 보다’가 경험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일정 시간은 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으)ㄴ 적이 있다’가 시점 고정으로 사용될 때 동사의 성향을 살펴보면 [+순간성] 동사는 전체 100개 중 67개, [-순간성] 동사는 전체 100개 중에 33개로 나타났다. 특히 ‘(으)ㄴ 적이 있다’와 결합한 동사 중 [+완료성]을 가지는 동사는 전체 100개 중 81개, [-완료성]을 가지는 동사는 100개 중 19개로 ‘(으)ㄴ 적이 있다’와 결합하는 동사는 일정시간 진행되는 동사류가 아닌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바로 완료되는 종류의 동사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적’의 의미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결합하는 동사들도 그러한 특징을 가진 동사들과 함께 사용된다.

‘-아/어 본 적이 있다’는 ‘-아/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의 특징이 모두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반복, 다수 의미의 어휘와 함께 [+순간성] 동사가 사용되고, 행위의 시간의 폭이 드러나는[-순간성] 동사들이 모두 나타나 일정 시간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으)ㄴ 적이 있다’의 특징인 특정시점까지의 한계가 있어 특정 시점까지의 행위의 진행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결국 ‘-아/어 본 적이 있다’는 일정시간 행위의 진행이 일어나지만 과거 특정시점에서 진행이 완료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4〉 경험 표현의 시간폭 비교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경험 표현 ‘-아/어 보다’, ‘-(으)ㄴ 적이 있다’, ‘-아/어 본 적이 있다’의 각각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고 의미차이를 밝혀 의미 변별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우리가 대표적인 경험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어 보다’는 경험보다는 시행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교재에서 경험의미로 함께 다루는 ‘-(으)ㄴ 적이 있다’ 역시 순수 경험이라기보다는 시점고정 표

현으로 과거 한 시점에서 관찰된 사건을 과거의 그 시간에 고정하는 사건시점고정과 과거의 한 시점에서 경험한 것을 인지하는 경험시점 고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점고정이 가능한 것은 결합하는 용언의 성질이 [+완료],[+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험시점고정이 우리가 경험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아/어 본 적이 있다, 없다’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아/어 보다’의 시행과 경험이 ‘-(으)ㄴ 적 없다’의 경험시점고정이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정기간 행위의 진행이 있는 후 특정 시점에서 행위가 고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표현으로 알려진 세 개의 문형을 살펴 경험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들도 공존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 문형의 의미적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자료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과 구어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 참고문헌 ■

-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역락
- 정연희(2017) 한국어 보조동사 구성 ‘-아/어 보다’의 의미 변화와 문법화, 담화와 인지24-3
- 정언학(2006) “상이론과 보조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 조영보(2019) ‘-아/어 보다’의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0권1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 김진호(2020) 한국어 교육의 ‘경험’의 의미와 기능어 연구, 아시아 문화 연구 53, 가천대학교 아시아 문화 연구소
- 손세모들(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강현화 외 (2017)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유사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토론〉 “한국어 경험표현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승연(서울시립대학교)

이 연구는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중심으로 두 문형이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핀 연구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초급 단계에서 교수되는 문법 항목이므로 학습 중요성이 비교적 높은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형을 단순히 ‘경험’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법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신문의 예문들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논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자가 이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보지 못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송구합니다. 다만 몇몇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림으로써 향후 연구를 완성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1. 연구의 서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경험’의 의미로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두 문형의 의미를 유사하게 다루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재에서 ‘-어 보다’는 ‘쇼핑’, ‘주문’ 상황에서 ‘-어 보세요’ 문형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권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때 ‘-어 보다’는 ‘시도’ 즉, 이 연구에서 말하는 ‘시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목표 문법으로 다루는 단원에서는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포함한 문장을 주로 예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예문 중 많은 수에 ‘-어 본 적이 있다/없다’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가 함께 쓰여 ‘경험’의 기능을 한다고 학습자에게 인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 교육에서 ‘-어 보다’와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동등한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법이 갖는 차이를 ‘경험’과 ‘시도’의 측면에서 논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보다는 국어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혹여 토론자가 발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이 연구가 한국어 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가 있다면 발표자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문 8)에서 다루신 ‘맞아 봤다, 맞은 적 있다, 맞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맞다’가 부사 ‘많이’와 결합하여 “복수(複數)의 시행이 경험이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맞다’의 여러 의미 중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뜻으로 쓰인 예문 8가) “돈 뺏기고 많이 맞아 봤다”는 ‘주어의 의지 결여’, ‘주어의 경험이 전제된 어휘(맞다) 사용’ 등의 조건만으로도 경험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이는 손세모돌(1996)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험 판별 기준’의 공통된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예문에 대해 ‘복수의 시행이 경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3. 연구자께서는 분석한 기사 제목 100개의 문장에 쓰인 동사의 의미 속성을 [±순간성], [±완료성]으로 구분하여 통계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동사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가능

하시다면 동사의 사례 몇몇이라도 보여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